

1920~1930年代 獨逸 地誌學의 研究 動向

김 재 완*

20세기 전반기는 리터, 훔볼트로부터 시작된 근대 지리학이 꽃 피던 전성기였다. 19세기말 답보 상태였던 지리학이 20세기 들어서면서 地誌學을 중심으로 유럽 각국에서 눈부신 발달을 보였다. 특히 독일의 헤트너와 쉬워터, 프랑스의 비달 드 라 블라쉬, 영국의 허버트슨 등을 지도자로 하여 각기 독특한 地誌學 方法論이 발전하였고, 경험적 연구도 많이 쏟아졌다. 그리하여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地誌學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본고는 1920년대와 1930년대 독일에서 논의된 지리학자들의 지역 개념과 지지 방법론을 고찰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獨逸의 地誌學 動向은 일본 지리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영향으로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地誌學者인 田中啓爾는 지형, 기후, 식물대, 인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본의 지역구분을 시도하였다. 그는 당시 일본 지리학자들과 일본에서 공부하던 한국의 지리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주요어: 地誌學, 地域 分類 方法, 地域 記述 體系, 地誌的 圖式

1. 序論

地域에 대한 概念은 古代 地理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근대 지리학의 탄생과 함께 지역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에 들어 와서 리터에 의해 지역 개념이 '地理的 個體'로 구체화 되었고, 이어서 독일의 헤트너와 프랑스의 비달 드 라 블라쉬가 이것을 계승, 발전시켰다. 이러한 地誌學의 전통이 영국과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각기 그 나라마다 독특한 방법론을 발달시켰고, 방법론에 대한 토의를 활발하게 하였고, 많은 경험적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地誌學의 전성기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는 過去 地形學 中心의 自然地理學에서 人文地理學과 地誌學으로 지리학 중심이 옮겨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지리학자들은 지리학을 '單元的 科學'으로서 다른 학문으로부터 독립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들은 각 지역을

합목적성으로 지역구분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래서 국가를 地理的 單位(Geographical units)로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을 科學的 地誌로 보았고, 또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당시 독일에서 논의된 지역론과 지지적 도식 및 지역구분 방법은 현재 韓國地誌 記述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英美의 영향을 받은 일부 지리학자들은 헤트너의 地域論과 '地誌的 圖式'을 폐기되어야 할 낡은 틀로 간주하고 있지만, 아직도 韓國地誌 記述에서는 여전히 유용한 틀로 이용되고 있다. 무조건 과거의 것이라고 비판하고 버리는 것보다는 과거의 낡은 틀을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해를 해야 하고, 그것의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지역연구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筆者는 이 研究를 통하여 地誌學이 꽃 피던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독일을 중심으로 한 지지학 동향을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 지리학계가 무비판적인 '地誌的 圖式'의 수용과 비판을 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졸업(Ph.D.)

검토하고, 새로운 지역 방법론의 틀을 짜는데 일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韓國 地理學史에서 공백기로 남아 아직도 해명되지 않고 있는 일제 강점기 및 해방 후 韓國 地理學史를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20년대와 1930년대 발간된 서양과 일본 지리학자들의 文獻을 검토하였다.

2. 헤트너(Hettner)의 地誌學

1) 헤트너가 본 地誌學 研究 對象과 ‘全體性’ 概念

20세기 전반기 독일의 지역 연구는 地域論을 주장하는 헤트너와 景觀論을 주장하는 슈뤼터(Schlüter)와 주로 펠크(Penck)의 門下生으로 구성되는 경관형태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론적인 면에서 가장 공헌한 사람은 역시 알프레트 헤트너이다. 먼저 헤트너의 지리학 원리와 연구 방법을 고찰하기로 한다.

地誌(chorologie)를 주장하면서 독일의 지역 연구의 전통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학자가 알프레트 헤트너이다. 1898년 발표한 논문에서 그는 고대부터 당시까지 지리학의 뚜렷한 주제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는 地表上의 地域들에 대한 연구로 간주하였고, 인간을 지역내에서 자연과 통합되어 있는 한 부분으로 보았다. 또한 과학의 진보와 발맞추어 지리학의 연구는 단순한 기술에서 벗어나 因果關係를 研究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Hettner, 1898:305-20). 그 후 1905년 論文에서 그는 二元化되어 있는 地理學을 통일시키는 방안으로 地理學을 地誌學(chorologische Wissenschaft)으로 정의하면서, 모든 지역은 고유하며, 그 고유성은 가시적 경관뿐만 아니라, 비가시적 경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이희연, 1992:396에서 재인용). 특히 지리학은 지역적 현상을 개개의 현상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적 현상을 통하여 지역의 전체성으로서 지역적 특성, 요컨대 地域性을 인식하는 것이다(富田芳郎, 1939:12에서 재인용). 뒷 사실을 종합할 때 헤트너는 지리학의 대상을 지역학으로 보았고, 지역성을 밝히는 것이 地誌學의 주 임무로 생각하였다. 헤트너의 다음 논의에서 언급

한 地理學은 地誌學과 동일시할 수 있다.

헤트너의 地域에 대한 思考는 1927년에 발표한 論文(Hettner, 1927)에서 거의 완벽하게 표출되었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지리학의 연구 대상은 개개의 地表 事象이 아니고, 개개의 지구 공간 및 지구 장소의 상이성에서 지표¹⁾이다. 그는 지리학은 지구의 일반과학이 아니라고 하면서 연구대상을 지표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르는 공간은 추상적, 기하학적 공간이 아니라 지표에 실재한, 리터의 표현을 빌리면 ‘事物이 充塡된’ 空間이다. 헤트너는 공간을 장소적으로 상이하게 하는 것, 즉, 相異性이 諸事象의 因果的 相互作用에 의해 空間 내에 조화로운 전체를 형성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여기서 지구의 공간 및 장소의 지표에 실재한 공간은 大陸(Erdteile), 地方(Länder), 景觀(Landschaft), 場所(Örtlichkeit)를 지칭한다. 綿貫勇彦는 헤트너가 지리학이 지방, 경관, 장소가 지표 장소에서 상이하고, 그것들이 전체적 통일체가 되는 장소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綿貫勇彦, 1929:1-2). 筆者는 인과적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현상이 다른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서로 관련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磯崎 優는 ‘전체적 통일체의 성격인 통일성은 지방, 경관, 장소의 내부 본질에만 기초해야 하고, 이 통일성은 사물의 일종 특별한 역사적 관찰에 대해 규범적인 두 관계에서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2가지 관계를 기초로 한다’는 헤트너의 말을 인용하였다(磯崎 優, 1933:124-5). 하나의 관계는 상호 인접하는 事象의 지역적 인과관계와 함께 시간적 경과 및 잇달아 일어나는 事象의 인과관계에 기초한 장소의 차이이고, 또는 지리학적 종합 및 조직, 예를 들면 수계, 대기순환 법칙이다. 또 다른 관계는 어느 한 지역에서 결합하는 이종의 자연계와 그 곳의 다른 현상의 인과관계이다. 다른 현상과 인과관계가 있는 현상이 그 동일 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 혹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못 할 때 그 현상은 지리학적 관찰의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뒷 글을 종합해 볼 때 헤트너는 지리학의 대상이 반드시 사상간의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고, 그래야만 지역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지역간 인과관계의 추구는 헤트너의 근본사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헤트너는 지리학을 地誌學(Länderkunde)으로 정의하고, 기술하고, 귀납적인 범세계적 기초하에 그것들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이는 지리학의 관심이 系統學과 대비되는, 공간적으로 배열된 地表 事象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그가 지리학을 과학 분류상 어느 위치에 좌정시켰는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빈델반트와 리케르트의 과학 분류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경험과학을 유개념 인식 학문인 법칙과학과 개체의 가치 인식의 학문인 개성과학으로 대별하는 것이다. 리케르트가 자연지리학을 前者에, 인문지리학을 後者에 위치시키는 것에 반대하여 헤트너는 지리학의 일원론을 주장하였다. 리케르트의 정의에 따르면 지리학에서 장소는 없고, 개성과 보편성의 대립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헤트너는 리케르트의 견해에 반대하면서 지리학은 장소의 성격에 가치를 두어야 하고, 지리학은 법칙과학일 수 없고, 단지 地表의 場所性에 따라 類型으로 分類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헤트너는 지리학의 법칙학문적 성격을 부정하였다. 여기서 筆者는 하르트손과 쉐퍼의 지리학 성격 논쟁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두 巨人의 논쟁이 1945년 이전 독일의 학문 논쟁까지 소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헤트너의 지리학 개념 규정을 충실히 따른 사람이 하르트손이고, 빈델반트와 리케르트가 주장한 법칙과학의 성격을 지리학에 적용한 사람이 쉐퍼인 것이다.

헤트너는 시간을 기술하는 역사학과 공간을 기술하는 지리학으로 구분한 칸트 방식의 학문 구분을 따랐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現實 認識에 關與하는 具象科學을 다음 3가지로 구분하였다; 1) 물적 특성의 다양성과 동족관계를 인식하는 것을 통해 학문의 단일성을 구하는 것, 즉, 物的 科學 또는 組織的 科學은 구상과학의 대부분을 포함한다. 2) 연대기적 또는 역사과학 3) 우주공간에서 배치학으로서 천문학, 지표공간에서 배치학으로서 지지적 또는 지리적 과학이다. 이상과 같이 헤트너는 조직적 과학, 시간적, 발전적 과학 및 공간배치적 과학을 구상과학 하에 구분하고, 지리학은 지지적 과학이라는 특유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하였다. 筆者는 칸트의 지리학 규정은 지리학을 역사학으로

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학문으로 지리학이 발전하는데는 기여를 했지만, 오히려 시간의 경과를 다루는 역사지리학의 좌정을 어렵게 했다는 생각이 든다.

만일 지리학이 장소적 특성을 버린다면 지구의 전체적 해석과 지구 개개 현상 및 성질에 대한 해석이라는 2가지 관점이 중요하다. 전자는 라첼의 지구 유기체 개념과 비슷하다. 헤트너는 지구 전체로서 관점은 비지리적이라고 비판했지만, 개개의 지방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 전지구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후자는 개개의 현상 및 성질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즉 일반 지구과학으로서 지리학이다.

事象 間의 原因關係 追求는 지리학의 중요한 직분으로서 리터도 기술한 바 있다. 이러한 事象間의 관계는 당연히 원인관계이고, 地方에서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 또한 지리학의 직분이다. 헤트너는 이 의존관계와 지방과의 불분리성을 훔볼트가 식물지리학 연구에서 이룬 토지의 '종합적 전체성'에 도입함으로써 지리학에서 지방 개념을 구성하고 있다. 綜合的 全體性은 비달 드 라블라쉬의 '地的 渾一體', 라첼의 '全體性'(hologaische) 見解와 일맥상통한다. 헤트너에 있어서는 각 장소가 상호관계에 의해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 현상을 보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고로 우선 넓은 지구공간 현상을 추구하고, 그것을 일정 지구공간에서 종합하고, 전체로서 형성된 특질을 인식하는 것이다. 요컨대 지표 개개가 그 장소에 따른 특유한 전체이고, 그 전체성은 내부에서 현상 간 의존관계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토지의 통일작용은 지표 본질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선 본질적인 지표 장소가 형성되고, 그것이 自然界, 有機界, 人間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체성' 사고는 당시 地誌學의 發達에 크게 공헌했다고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여기서 헤트너가 '全體性'의 개념을 어떻게 지리학에 도입하여 적용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헤트너는 1934년 論文(Hettner, 1934:141-144)에서 지역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全體性'을 논의한 바 있다. 그의 '全體性' 개념은 지리학 대상, 지역구분, 지역 선정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또한 '全體性' 概念은 그의 地域論의 核心인 地域性의 哲學的 土臺가 되고 있는데, 그는 이 논문에서 전체성의 개념의 지리학에 적용 가능성과 의의를 읊미하고 있다.

헤트너는 그의 論文(Hettner, 1934:141)에서 지리학에서 '全體性'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다음과 기술하고 있다 ; '全體性'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드리쉬(Driesch) 영향으로 종래보다도 강하게 擡頭되고 있으며, 지리학에서 전체성 즉, 地域個體(Länderindividuen) 파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筆者는 헤트너의 '전체성' 개념의 도입은 약간 과장은 있지만 지리학을 학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공헌했다고 본다. 다음은 '全體性' 개념에 대한 讀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개한 글이다.

'전체성' 개념은 생명체, 유기적 자연의 파악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리고 실재(본질)는 부분으로 구성되지만 부분 이상에서 나오는 固有性(Eigenschaft)을 가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그것은 부분의 總合以上の 것이고, 실재는 부분적으로 규정될뿐만 아니라, 역으로 부분에 작용하여 그것을 규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小牧實繁, 1934:54).

전체의 부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선형적으로 2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하나는 전체는 부분에서 생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분은 전체로부터 생기거나 혹은 전체는 부분의 집합 협력에 의해 생긴다는 것이다.

사물의 1차적 全體性은 미분화된 混沌의 宇宙로서 地理學에서는 太陽界로 대체될 수 있다. 地球는 太陽系의 微分(分化)에 의해 발생하므로 늘 태양·달의 인력 및 복사에 의존한다. 우리는 地球를 하나의 전체로서, 지표 전 사물을 地塊(Erdmasse)의 미분(분화)을 통해 생기는 전체 부분으로서 파악이 가능하다. 地塊의 分化는 수평적 및 수직적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前者는 有·無機 自然界, 人間으로 分化이고, 後者는 場所的, 空間的 또는 협의의 의미에서 地理學的 分化이다. 이러한 작용으로 지표, 수계, 기후의 형태 및 성질이 발생한다. 식물계는 無機의 자연에 의존 및 순응하고, 동물계는 식물계에 순응하고, 무기적·유기적 자연은 인간생활의 기초이자 조건이 된다. 場所 또는 地域은 植物·動物·人間을 제외하면 하나의 전체로 볼 수

있고, 인간을 제외한 유기적 자연도 하나의 전체로 볼 수 있다.

著者は 地誌를 기술할 때 전체성의 개념을 원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때 사실의 기술이나 인간 요구에 대한 사실의 실용적 가치 평가나 혹은 예술적 평가로 만족할 것인가 혹은 장소나 지역을 인과적으로, 발생적으로 설명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등 선택 문제가 발생한다. 記述의인 地誌는 가장 눈에 띄는 것, 가장 實用的 意義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여 차차 눈에 띄지 않는 현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 분석적이면서 인과적인 地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분석적이면서 인과적인 地誌는 地域을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인과적으로 1차적인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산악 구조(조산)와 지표형태의 형성을 먼저 기술한 다음, 기후를 기술해야 한다. 동·식물계의 事實 또는 인간생활부터 시작하는 것은 因果的 記述의 原則에 違背되는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헤트너의 '全體性' 概念은 1927년 그의 논문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전체성'을 기술하지 않았지만, 그 지리학 대상 규정과 지역구분은 전체성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1934년 논문에서 그는 全體性 概念을 좀 더 분명히 하였고, 後述할 지역구분 방법을 좀 더 세련시켰다고 볼 수 있다.

2) 地域區分 論議와 그 實際

헤트너에 의하면 자연지역의 구분은 개개의 목표에 의존하지 않고, 구분 요소의 원인적 결합에 의한 '多面的 解釋'이다. 그러므로 구분된 개개의 것은 지리학 대상인 全體性 地表空間의 '基礎面'이 되어야 한다. 즉, 대륙, 지방, 경관, 장소는 자연지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들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크기에 따라 구분된다. 以下 헤트너의 自然地域區分 論議는 그의 1927년 論文을 참고하여 요약하였다(綿貫勇彦, 1929:17-21에서 재인용).

자연지역 구분은 가장 작은 장소에서 시작하여 경관, 지방, 대륙으로 나아가는 방법과 그 반대로 全 地球로부터 출발하여 구분에 의해 개개의 대륙, 지방, 경관, 장소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다. 前者를

취한 사람은 영국의 언스티드(Unstead), 독일의 파사게(Passarge)이고, 後者를 택한 사람은 영국의 허버트슨(Herbertson)과 독일의 헤트너(Hettner)이다. 헤트너는 지역구분이 지구 전체에서 출발하고, 原因關係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지역구분은 우선 지표 현상 및 과정이 귀속하는 원천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음 두 가지로 귀착된다. 1) 지구 자체에 속한 고유한 地球的인(tellurisch) 것 2) 다른 천체 특히 태양에 기인하는 것. 가령 引力關係에 의해 일어나는 지구 공전, 조석 운동 등이다. 이들이 지표 相異性의 原因이 되지만, 주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태양에너지이다. 태양에너지는 지표상에 규칙적인 빛에너지의 분포를 이루고, 이것이 大氣大循環의 원인이 되고, 氣候帶를 형성함으로써 각 지역의 기후차를 발생시킨다. 지구적인 것 가운데 주요한 것은 내적 영력 과정 즉, 지구의 내부구조의 과정이다. 이 구조적 및 기후적 원인은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현상들을 발생시키는데, 많은 지표의 事象은 이들에 의해 결정된다.

筆者의 생각으로 헤트너는 지역구분의 결정인자를 자연적 요소 즉, 현대 지형학에서 말하는 외적 영력과 내적 영력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당시 지형학의 깊은 영향으로 보이며, 이것이 바로 당시 헤트너를 포함한 독일 地誌學者들의 특성이기도 하다.

以上の 原理에 基礎하여 헤트너의 지역구분 논의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地表에서 가장 뚜렷한 區分은 陸體와 水體의 相異性의 對比이다. 水體는 發生 側面에서 내부구조를 따른다. 지표에서 陸體와 水體의 對比는 특히 有機體의 生活을 고려한다면 다른 어떠한 구분보다도 중요해진다. 즉, 一體의 自然界, 有機界, 人間界는 兩者에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水陸 對照의 意味는 대륙의 다양한 부분과 해양과의 관계 및 해양의 다양한 부분과 대륙과의 관계에서 중요하다. 여기서 바다에 의한 육지의 격리가 가장 중요하는데, 그 영향은 격리의 크기와 정도에 의존한다. 따라서 대륙과 해양의 구분이 최대 구분되는 것이다.

각 大陸은 자체의 內部 構造를 갖고 있다. 즉, 獨自의 하천, 기후, 대기순환, 주요 생물 및 인간문

화를 갖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해양에 의해 격리된 섬, 大陸의 胴體와 뚜렷이 구별되는 半島는 대륙 구분 다음으로 중요하다. 가령 유럽, 동남 및 남부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제도, 북극, 아메리카 등의 섬 및 반도는 두드러진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및 大陸 胴體와 뚜렷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좁은 협만에 의해 분리된 섬, 반도, 해안에 연한 섬, 반도 등은 그 獨自性이 작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다음은 地殼 內部構造 및 地表形態이다. 그 발생에 근거해서 말하면 水陸分布보다 우선인데 外的 形態 및 作用上 그에 뒤따르는 것이다. 다양한 구조 및 형태의 지역(산맥, 준평원, 탁상지 등)은 그 자체 및 그것이 원인이 되는 현상(排水, 氣候, 植物, 文化 등)을 수반하여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된다. 이 경우 지표구분의 낮은 단계에서는 구조적, 형태적 단위지역이 앞에 놓이지만, 높은 단계에서는 종종 기후지역 구분의 後位에 놓여진다.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적, 형태적으로 통일된 전체는 그 자체의 單位性 외에 동시에 주변으로부터 境界的 存在가 될 수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산지는 저지 간의, 저지는 산지 간 각각 경계가 되는 것이다.

水陸對照, 內部構造 및 地表形態에 의한 구분 다음으로, 혹은 그와 병존하여 기후구분을 생각할 수 있다. 기후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태양광선의 복사량이고, 그 다음이 陸地의 垂直的, 水平的 地節이다. 그러므로 기후구분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것이다. 그러나 구분의 낮은 단계에서는 다른 것에 의존하거나 협동하여 작용을 한다. 즉, 균질한 水體球面에서는 완전히 독자적이지만, 대륙에서는 장소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有機界 및 人間生活의 地理的 區分에 대한 意義는 다른 無機 3界(陸界, 水界, 氣界)보다도 적다. 유기체는 독자적이라기 보다는 생태학적인 한 표시로 의의를 갖는다. 위에서 구분의 기초는 수륙분포, 내부구조, 형태, 기후의 상이다. 그것에 분리작용이 추가된다.

위에서 헤트너의 지지 방법론과 지역구분에 대

해서 고찰해 보았다. 그러면 그는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세계를 지역구분하였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헤트너는 1908년 「地理學雜誌」(Geographische Zeitschrift)에 寄稿한 論文 「地表의 地理的 區分」(Hettner, 1908:1-7, 7-13, 94-110, 137-150)에서 영국의 허버트슨(Herbertson)과 다른 지역 구분 圖式(scheme)을 제안하였다. 이 잡지에 헤트너는 총 4개의 지역구분 관련 논문을 실었다. 첫번째 논문은 「人爲的 區分」이라는 제목 하에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역구분에 관하여 논하였고, 두번째 논문에서는 칼 리터의 目的論的 區分을 논하였고, 세번째 논문은 지방, 경관, 장소 등 자연적 구분 기본 요소를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마지막 논문에서는 분류를 시도하였다. 허버트슨처럼 다양한 크기의 지역(Landschaft, Lande, Erdteile)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지역은 自然地域이라고 주장하고, 인간적 요소를 배제하였다.

그의 지역 구분 방법은 前述한 바와 같이 가장 큰 지역에서 출발하여 세분해 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20년 뒤 1927년 논문 「地理學, 그것의 歷史, 本質, 方法」(1927)에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가령 육지와 물로 구분하고, 전자를 다시 대륙과 섬으로 구분하였다. 섬들은 다시 洋島와 陸島로 구분하고, 陸島는 인접한 대륙에 포함시켰다. 헤트너의 대륙 구분은 단지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 발견 순서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스트레리아, 남극으로 대륙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대륙을 위치, 기후, 지질구조를 기초로 세분하였다(Dickinson & Howarth, 1933:240). 그러므로 유럽은 (1) 북부 섬들과 반도들 (2) 남유럽 반도와 섬 (3) 대륙 블록으로 구분된다. 또한 이탈리아는 상부 이탈리아, 반도, 섬들로 구분되고, 영국은 행정구역을 기초로 구분하였다. 아시아의 지역 구분에서는 1. 북아시아 : 서 시베리아, 동 시베리아 2. 서남아시아 : 아랄 - 카스피해 저지(코카서스국), 소아시아, 아르메니아 고지대, 시리아-아랍 블록, 튀란, 이란 3. 중앙아시아 : 서몽골과 중가리 분지, 타림분지, 고비 사막, 티벳 고원 4. 동아시아 : 북 동아시아(캄차카와 쿠릴 제도 포함 호호츠크), 아무르지방, 만주, 코리아, 일본, 중국(대만과 류구 포함) 5. 남아시아 혹은 동 인도 : 히말라야, 북인도 저지, 데칸, 실론 6. 동

남아시아 : 말라카 반도 7. 동인도 섬세계 : 필리핀, 보르네오, 셀레베즈, 몰루카즈, 순다열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의 지역구분의 특성을 보면 아시아에서 북아시아, 전방 아시아(Vorder-Asien), 중앙 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혹은 동인도, 전방 인디아(Vorder-Indien), 후방 인디아(Hinter-Asien), 동인도 제도로 구분하였는 데, 즉, 1차적으로 방향·위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차 하위구분에서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지형의 명칭, 즉, 고원, 분지, 산맥, 하천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역 구분하였다. 대륙과 그 이웃에 있는 섬을 묶어서 지역구분을 한 점은 陸島는 인접한 대륙에 포함시킨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또한 리터의 냄새가 약간 풍기는 지역구분의 이름이 존재한다. 그 예가 고지대(Hochland), 저지대(Tiefland) 등이다. 헤트너의 지역구분에서는 리터가 아시아를 몽골고원 중심 동아시아와 이란고원 중심 서아시아로 크게 지역구분한 방법의 영향이 었보인다. 또한 自然體系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도 헤트너가 칼 리터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헤트너가 命名한 中央 아시아는 서몽골·중가리 분지·타림분지·고비 사막·티벳 고원 지역으로 오늘날 중국 신장성, 서장성, 몽골을 가리키며 지금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주벡스탄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地誌的 圖式」과 그 批判

위에서 헤트너의 지역구분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 이번에는 내용을 담은 틀을 고찰하기로 한다. 헤트너의 地誌 記述은 獨逸의 傳統的인 地誌 記述 方法인 「地誌的 圖式」(Länderkundliche Schema)을 根幹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지지적 도식은 이미 칼 리터 이전 25년전부터 지지기술에 이용되었는데, 기술 순서는 육지의 구조와 형태로부터 출발하여 지질을 거쳐 기후, 수계, 식물, 동물, 인간 등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좀 더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위치와 입지 2. 지질 3. 지형 4. 기후 5. 식생 6. 자연자원 7. 취락 8. 인구 분포 9. 경제 형태 10. 교통로(the routes of circulation) 11. 정치적

구분이다. 그런데 이 기술의 순서는 기술 항목들이 因果關係의 일종의 순서(sequence)를 형성한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이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정형화된 순서로 배열되는 경우도 있다(Dickinson, 1969:122) : 위치, 지질, 지형, 기후, 천연 자원, 상고사, 중세, 인구 분포, 거주, 도로, 행정 지역구분. 이 배열도 이것들이 인과관계 순서로 서로를 뒤따른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이 도식은 재료의 합목적인 순서 이유뿐만 아니라, 땅의 고유성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연결시키고, 이것을 인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많이 적용되었다(von Drygalski, 1932:6). 실제 지역 연구에서 『地誌的 圖式』을 적용하여 연구한 실례로 드리갈스키(Drygalski)의 指導를 받은 베르너 라인바흐(Werner Leinbach)의 『투바 地誌』(Landeskunde von Tuwa, 1936:5-7)를 들 수 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크게 2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에서는 '自然環境'(Die Landesnatur)이란 제목으로 1) 도입(크기, 위치, 형태, 경계, 研究의 略史) 2) 분수령과 하천 3) 지질과 지세 4) 기후 5) 물 수지와 경지 6) 지형 7) 식물계와 동물계 8) 투바의 自然景觀이 나오고, 2부에서는 '투바의 인구'라는 제목으로 1) 인종과 민족 2) 경제 3) 교통과 교역 4) 취락 5) 세계관과 풍속 6) 전망 7) 요약 : 전체로서 투바 8) 결말 : 유라시아에 대한 투바의 중요성이 나온다.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地誌的 圖式』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종과 민족 강조는 獨逸 地誌의 특색을 잘 보여 준다. 이것은 독일에서 표준적인 지지 기술 방법으로서 당시 형식의 엄격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매우 효율적인 지역 연구 생산물이 나오기도 하였다(James & Martin, 1981:176).

이 방법은 독일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1900년대 프랑스 지역 논문에서도 받아들여져 지지 기술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이 도식적 접근은 오래 전에 진부한 형식으로 의심받았으나, 미국과 영국의 지지 기술에서 많이 이용되었다.

이 地誌的 圖式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실제 지역에 적용하여 지지를 기술한 사람이 바로 헤트너이다. 헤트너는 이 『地誌的 圖式』(Schema)을 『比較 地誌』(Vergleichende Länderkunde, 1933-5) 4권에

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Band 1. die Erde, Land und Meer, Bau und Hauptformen des Festlands(지구, 육지와 해양, 육지의 구조와 주요 형태)

Band 2. die Landesoberfläche(지표)

Band 3. die Gewässer des Festlands, die Klimate der Erde(지구의 수계, 지구의 기후)

Band 4. die Pflanzenwelt, die Tierwelt, die Menschenheit, die Erdräume(식물계, 동물계, 인간, 세계지역)

헤트너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그의 地誌冊인 『地誌의 基礎 : 유럽 外篇』을 기술하였다(Hettner, 1924). 이 책의 구체적인 지역 기술의 항목을 보면, 1. 발견과 탐험 2. 개념, 경계, 크기 3. 지질구조와 육지 4. 수계 5. 기후 6. 식물계 7. 동물계 8. 인종과 민족 9. 문화 10. 국가 상황 11. 취락과 인구 12. 교통 13. 경제 생활 14. 정신 문화(종교)이다. 이 배열 순서는 전통적인 지지적 도식을 수용하면서 약간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는 이 배열이 이미 19세기초에 개발되었을지라도 잘만 적용되면 나름의 내적 논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배열 원칙에 따라서 각 나라의 지지를 기술하였다. 또한 이 저서의 자료의 배열은 일반적 요소로부터 세분화된 요소로 이동한다. 즉, 전체적으로 대륙에서 그것의 주요 지역으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분경관(Teillandschaften)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도입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문헌과 지도들뿐만 아니라, 현재의 연구 상황과 역사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제공하고 있다.

1892년 南美 콜롬비아의 보고타 코르달레레 연구는 헤트너의 초기 연구로서 그의 실제 지지 기술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Hettner, 1892). 目次の 기술 항목을 보면 서론 부분에 지리학 문헌을 바탕으로 발견 및 탐험사가 기술되어 있고, 이어서 1章 山脈 構造·地形·水系, 2章 氣候, 3章 植物界, 4章 動物界, 5章 人間, 6章 地域性과 地域區分으로 되어 있다. '인간' 장에서는 세부 항목으로 (1) 민족 구성 (2) 국가 상황 (3) 취락 및 인구밀도 (4) 도시 (5) 도로와 교통 (6) 경제 상황 (7) 생산 방식과 문화

발전이 있다.

이 地誌書의 특징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기술 순서를 보면 위에서 열거한 「地誌的 圖式」의 항목 순서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것은 그의 「地誌的 圖式」이 상당히 초기부터 그의 지지 기술의 모델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둘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장의 내용이다. 그는 여기서 다른 사람의 地誌와는 달리 나름대로 지역을 구분하고 地域性을 밝히고 있는데, 이 점이 바로 다른 地誌學者의 地誌들과 구별되는 것이며 그의 지지학에 貢獻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장에서 그는 각 기술항목의 심층적 연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우리는 자연의 다양한 측면에서 보고타 산맥 지역을 배워 알게 되었다. 우리는 계속하여 산맥 구조, 지표 형상, 수계, 기후, 식물계, 동물계, 인간의 지리적 생활을 관찰하였다. 단위지역에 대한 심화 연구는 전체에 대한 시각을 소홀히 하게 하고, 현상간의 관계를 상실하게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의 파악이 지리적 기술의 고유 목표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역과 비교 연구를 통하여 山脈의 固有性을 밝히기 위하여 한번 더 개별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Hettner, 1892: 127).

그는 앞부분에서 개별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 單位地域에서 地域性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는 보고타 산맥 지역의 地域性을 '南美에 附屬', '赤道 位置', '山脈 性格' 셋으로 파악하였다(Hettner, 1892:125). 지역구분에서는 주로 지형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기술이 보인다. 그것은 바로 景觀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술로서 그가 지지 기술에서 미학적 표현도 중시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 미학적 전통은 지리학에서 훔볼트가 남미 여행에서 남겼는데 그 이후 잃어버린 전통이 되었다. 르클뤼가 지지 기술의 일부분에서 미학적인 기술 방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 그러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 기술은 그가 40년 후 쓴 美學的 地誌에 대한 論文

(Hettner, 1933:93-98)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헤트너의 「地誌的 圖式」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2가지 방향에서 왔다. 하나는 動的地誌와 空間有機體를 주장하는 쉬페트만을 중심으로 하는 지리학자들과 다른 하나는 지지학의 종합성을 주장하는 반제(Base)이다. 1930년대는 地誌에 대한 論爭이 가장 격렬하고 뜨거웠던 시기였다. 당시 地誌가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의 근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小牧實繁, 1936:5). 첫째, 地誌는 단순히 기술적이어서는 안 되고, 因果的 關聯을 명확하게 설명 가능하여야 한다. 이 입장은 因果論을 강조하는 헤트너派의 地誌를 대변하는 것이다. 둘째, 地誌는 地理的 空間有機體를 그 生活 全體性에서 파악, 표현하고, 또한 어떠한 것이 이 공간유기체의 독특한 고유성인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두 입장 중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老壯派와 小壯派로 나뉘어진다.

다음 두 파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小牧實繁, 1936:6-10). 노장파는 대체로 첫번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고, 소장파는 두번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다. 노장파는 대체로 연령이 높은 체계 옹호자로서 표면형태·기후·수계·식물계·동물계·거주·경제·교통·정치 체계라는 관습적 계열 순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 그들은 이 도식이 인과관계를 가장 예리하게 표현할 수 있고, 통일있는 인과조직·결합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체계는 실제로 정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본다. 연구방법은 재료의 수집과 선별 후에 곧바로 표현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 체계는 지지적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일반 타당한 처방이 주어져 있다. 인과성 원리 신봉자들은 인과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각각 연구대상에서 동등한, 혹은 대등한 체도를 좇아 지표면 형태·기후·식생이라는 기술 순서를 따른다.

이와 반대로 소장파는 因果性 原理(Kausalitätsprinzip)가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綜合性 原理(Totalitätsprinzip)가 완전히 가리워져 圖式 地誌를 채택한 地誌 記述은 김 빠진, 단순한 합리주의적 연습문제와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장파가 말하는 地理的 空間有機體는 그 본질상 복잡한 현상이다. 그들은 예비검사와 같은 것을 시작으로 일반

지리학(유형학)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또는 지리적 비교 응용에 따라 개개의 지리적 요인에 대하여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한다. 이는 사정되기 쉬운 개별적인 것, 일회적인 것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론에서 전체로서 공간유기체가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 소재를 개괄적으로 취급하는 일은 종합적 원리의 신봉자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들은 동일형식 취급을 피하고, 취급해야 할 공간유기체의 개별적 특수성에 대하여 의미있는 요인을 우선 취급하고 상세히 다룬다. 그리고 대상의 개별적인 전체성의 특색 顯現에 대한 개개 요인의 상대적 의의를 제 1로 한다.

綜合性 原理를 강조한 소장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動的 地誌를 주장한 슈페트만(Spetmann)이고, 그의 이론적 기반이 바로 空間有機體論이다. 그는 독일 루르 지역을 하나의 空間有機體로 보고, 그 연구지역의 주민 생활 전체에 관한 연구를 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당시 독일 지리학 체계는 대략 地質·地形·氣候·地下水·植物界·動物界·人間活動 순서를 좇아 기재되고, 그 중 지질과 지형이 리히트호펜 이후 특히 과대한 취급을 받아 왔다고 비판하였다(松井 勇, 1932:60에서 재인용). 筆者의 견해로는 당시 헤트너 등의 소장파의 지리학이 자연과학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한 점에 대한 반동으로 슈페트만 등의 소장파 지리학자들이 인문과학적 성격, 즉, 경제 현상에 대한 강조를 주장한 것이다. 이는 당시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공업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 슈페트만의 動的 地誌學 思想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의 동적 지리학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은 디나멘(Dynamen)思想²⁾이다. 동적 지리학 사상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위 3種類의 디나멘(Dynamen)이 결합하여 결과적으로 動的 힘의 場(das dynamische Kraftfeld) 및 地誌的 關係를 만드는 데, 이들 3종류의 디나멘(Dynamen) 관계는 일반적으로 극히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主 디나멘(Hauptdynamen)이 景觀의 本質的 性格을 규정하는 地誌에서는 副 디나멘

(Nebendynamen)을 경시하는 일 없이 이 주 디나멘(Hauptdynamen) 및 그것의 경관형성자(Landschaftsbildner)와 결합관계를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松井 勇, 1937:80-1에서 재인용).

여기서 슈페트만은 상기와 같이 디나멘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소위 圖式(Schema)에 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인과 계열이 반드시 도식의 순서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도식은 자유 형상이든 그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지적 목적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이다. 筆者의 見解로는 전체적 입장에서 본다면 圖式에는 결합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슈페트만 방법이 디나멘을 적출하고, 이것과 기타 사실과 결합을 고찰하는 것을 통해, 많은 경우 경관의 전체성을 재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 아이디어에서 독창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파의 주장처럼 종합성 원리에 근거한 지지가 많이 나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슈페트만의 動的 地誌도 많은 地理學者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한 쪽 비판은 獨逸 地理學者 반제(Banse)로부터 왔다. 그는 지리학의 발전 단계를 크게 5단계로 구분하였다(佐藤 弘, 1930:74에서 재인용). 1단계는 이야기 수준의 단계로 지리학의 가장 오랜 형태이고, 인간 행위와 사고를 특정 토지와 민족 가운데 새겨 넣고, 그 특정 경관과 민족을 설명하는 이야기 수준의 단계이다. 호머(Homer), 스위프트(Swift), 키플링(Kipling)이 이 단계 지리학에 속하는 사람이다.

2단계는 기술적 지리학으로 엄밀한 관점 없이 흥미있는 사실을 만연체로 기술하는 것이다. 中世에는 코스모그래피(cosmography)라고 불리웠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스트라보(Strabo), 뮌스터(Münster) 등이다. 18世紀가 되어서야 지리학이 코스모그래피에서 탈피하여 國家學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국가학은 전제국가에 대한 유용성이라는 관점에서 소재를 정리, 집성하였던 것이다.

3단계는 分析的 地理學이다. 이것은 소위 과학적 지리학 단계이다. 이 단계의 지리학은 소재를 일정하고 엄밀한 관점에서 선택하고, 그것과 知的 關聯

성이 존재하는 한에서 소재를 취급한다. 현상 상호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 및 상관관계를 제약하는 인과성의 고찰이 행해진다. 새로운 연구작업의 방법으로서 야외 관찰이 사용된다. 이 단계 지리학의 업적은 크게 지형학과 인문지리학에서 이룩되었다. 분석적 지리학은 다시 일반 지리학과 특수 지리학으로 이분되는데 일반지리학에서는 지구의 피복이 전체적으로 고찰되고, 그 위에 현상의 분포와 발생이 추구되고, 법칙성의 인식이 시도된다. 다음 特殊地理學, 또는 地誌에서는 지구 표면의 개개 지역이 고찰되고, 그 지방 내에 한정된 개개의 현상의 고찰에서 그 공간의 전체성이 인식되고 있다. 이 단계 지리학의 대표자로서는 훔볼트(Humboldt), 리터(Ritter), 페셀(Peschel), 리히트호펜(Richthofen), 라첼(Ratzel), 파르취(Partsch)이다.

마지막 단계는 종합적 지리학 단계이다. 이것은 반제가 주창하는 새로운 지리학이다. 헤트너학파의 분석지리학은 자연을 지질구조와 발생, 지표 형태와 수계, 식물계와 동물계라는 도식 계열로 나누어 취급하고, 다음에 인간을 인구와 국가, 촌락과 교통, 농업과 광업, 공업과 상업 등으로 각각 고찰한다. 여기에서 假定은 이 현상들 간에 충분한 인과성이 있다는 것인데, 반제는 현상들간에 인과관계가 미약하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주창하는 종합지리학은 자연과 인간생활에 관한 모든 개개의 사상을 경관과 민족이라는 2개의 기치아래 종합하고, 이 양자는 가시적, 비가시적 유대를 통하여 조합된다고 하였다(佐藤 弘, 1930:74에서 재인용). 또한 방법에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지리학이 엄격한 관찰과 인식에 매달리기 때문에 단조롭고 지루하고 딱딱하다는 점으로 감정이나 인상같은 예술적 방법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佐藤 弘, 1930:72에서 재인용).

위의 반제 지리학은 경관지리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지리학이 분석에서 종합으로 나가는 동향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시대정신(Zeitsgeist)을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당시 독일이 지향하는 민족주의적·국가주의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지표면의 경관 서술에 지구상의 각 민족의 성격, 민족 정신의 지리적 해석을 추가한 것은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시대정신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쉬페트만과 반제는 도식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前者는 완전히 과학적인 반면에, 後者는 예술적 행동, 정신적, 감정적 인상을 가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결국 후자는 히틀러 시대의 지정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3. 쉬뤼터(Schlüter)의 文化景觀

景觀의 概念을 지리학 학문에 도입하여 발전시킨 사람이 쉬뤼터이다. 우선 景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한다. 지리학이 독립과학인 이유는 독특한 지역의 개념, 즉, '景觀(Landschaft)' 概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松井 勇, 1937:13에서 재인용). 당시 독일에서 경관연구(지역연구)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고, 당시까지도 지역연구가 지리학의 핵심 주제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런데 독일에서 지역(region)을 나타내는 경우 용어들은 다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Länderkunde는 전통적인 의미의 지역 연구 논문(regional monograph)과 같이 한정된 단위지역을 기술하는 것을 말하며, Landschaft는 地域의 景觀(landscape)과 유사한 말로써 과학적으로 정의된 지리적 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단위지역을 나타낼 수도 있거나 지역의 유형을 가리킬 수도 있다(이희연, 1992:395). Landschaftskunde는 소규모 단위지역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을 경계 짓거나 분류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당시 학자들이 경관을 정의한 것을 보면, 그들은 경관을 리터가 정의한 '空間의 物質 充墳'(Dinglich Erfüllung der Erdraum) 혹은 '物質에 의해 充墳된 空間'으로 보고, 구체적, 지역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獨逸語의 Landschaft 또는 英語의 Landscape가 심미적 의미를 가진 비과학적 개념으로 보고, '地理的 複合體'(Geographic Complex) 혹은 '地域相'(Areal Scene) 혹은 佛語의 '데코르'(Decor) 등으로 표현할 것을 추천하였다(渡邊 光, 1933:35에서 재인용). 쉽게 표현하면 경관은 물질적 존재로서 실재하는 곳의 자연물 및 문화 조영물의 일체를 포함하는 지표이다. 그러나 이 정의는 덜 명확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경우도 있다 :

경관은 일정한 성격을 가진 토지 표면의 일부, 즉 지역단위이다. 여기서 일정 성격은 토지 표면의 외적 형상 및 이것을 구성하는 제현상 간의 상호관계 및 그 내적 및 외적 위치 관계에서 일정한 성격을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정 성격에 따라서 Landschaft는 주변지역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할 수 있다. 지리학에서 특유한 과제는 Landschaft의 구성요소의 분석적 연구를 통하여 그 종합적 형상을 파악하는 점이다. 여기서 운운하는 경관의 구성요소 즉, 경관 형성자(Landschaftsbildner)로서 지형적, 기후적, 수계적, 식물적, 동물적 현상 및 인간 제현상 및 위치관계를 다룬다(松井 勇, 1937:74).

위에서 한 정의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선 경관은 지역단위라는 것, 일정한 지역성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외적 형상 및 상호관계 등을 갖는다는 것이다. 경관학(Landschaftskunde)의 정의와 매우 유사함을 보여준다.

Fochler-Hauke(1959)는 景觀學(Landschaftskunde)을 다섯 가지 유형의 접근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즉 경관형태학(landscape morphology),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 경관역사학(landscape chronology), 지역화(regionalisation), 경관분류학(landscape classification)이 이들이다. 이 중에서 1920-30년대 독일에서 가장 발달한 유형이 경관형태학이다. 경관형태학 성립에 가장 공헌한 사람이 쉬뤼터와 뎡크이다. 먼저 쉬뤼터의 地理學 思想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쉬뤼터는 라첼, 데이비스(Davis), 비달 드 라블라쉬의 인간-자연 관계에서 자연 강조를 반대하였을뿐만 아니라, 헤트너의 地表 現象(terrestrial phenomena)의 地域的 關係(areal associations)에도 반대하였다. 그리고 경관론에 방법론을 부여하였다. 쉬뤼터의 주장에 따르면 지리학자들은 지리학의 고유주제로서 지표상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형태와 공간 구조에 관해 연구해야 하며, 비가시적 또는 비물질적 특징들(사회, 경제, 인종, 심리, 정치상황 등)은 연구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즉, 그는 지리학을 景觀相(Landschaftsbild)에 한정하고, 그 경관에는 인간이 그 감각을 통하여 지각할 수 있는 것만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는 비가시적 특징들을 배제한다는 헤트너의 강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는데, 헤트너는 비가시적 영역 배제가 정치지리학, 민족지리학, 교통지리학, 상업지리학의 상실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다양한 수준에서 경관 요소의 형태, 기능, 결합, 지역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의 지리 연구의 초점이다(Dickinson, 1969:128). 그가 形態와 機能을 중시한 이유는 '유사한 기능은 유사한 형태를 낳는다'는 라첼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는 自然景觀이든 文化景觀이든간에 형태, 기능, 소재를 고려함으로써 경관형태학을 성립시켰다.

쉬뤼터는 1906년에 「人文 地理學의 目標」(1906)라는 論文에서 단지 종속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과학으로서 인문지리학을 다시금 거부하였다. 그리고 그는 캅프(E. Kapp)에 의해 신조된 '文化地理學(Kultur-geographie)' 用語를 채택하였는데, 그 주 내용은 취락지리, 교통지리, 경제지리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상을 문화지리학에 한정하면 지리적 대상으로서 남는 것은 자연지리적 현상 외에 취락, 교통로, 경제의 가시적 현상 및 인간이다(Schick, 1982:118).

빔머(J. Wimmer)는 景觀을 '토지표면의 일부이고, 그림 또는 언어에 의해 표현된 대상'이라고 최초로 정의하고, 歷史的 景觀을 '하나의 지역이 어느 역사시대에 보여준 景觀像(Landschaftsbild)'이라고 정의하고, 역사시대에서 경관의 변천을 추구하였다(松井 勇, 1937:345). 즉, 그는 경관의 시간적 흐름을 연구하는 경관역사학 분야를 만들었다.

쉬뤼터는 라첼과 빔머의 경관 개념을 도입하여 좀 더 세련시켜서 自然景觀과 文化景觀을 구별하였다. 여기서 자연경관은 자연적 충전물이 自然力 또는 自然關係에 의해 통일되어 있는 하나의 地表空間이고, 地方의 本源的 空間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綿貫勇彦, 1930:221). 자연경관은 모든 인간활동이 중지되었을 때 생기는 자연조건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경관을 연구하는데 역사적인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그의 방법론을 보면 우선 인간활동에 의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原景觀(Urlandschaft)을 먼저 밝히고 난 후, 이 原景觀이 점차 人間의 文化에 의해 創造된 文化景觀(Kulturlandschaft)으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기틀 위에서 경관의 변화를 추적하려고 시도하였다. 여기서 原景觀은 人間の 介入이 있기 전 경관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원경관의 복원은 문화경관과 현재의 비교, 추이 과정 탐구를 위해 필요하다. 원경관의 필요성은 첫째, 문화경관을 고찰하기 위한 출발점을 얻을 수 있고, 둘째, 지지학적 서술의 다양한 부분을 상호 결합하고 통일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國松久彌, 1930: 169-170에서 재인용). 자연경관과 문화경관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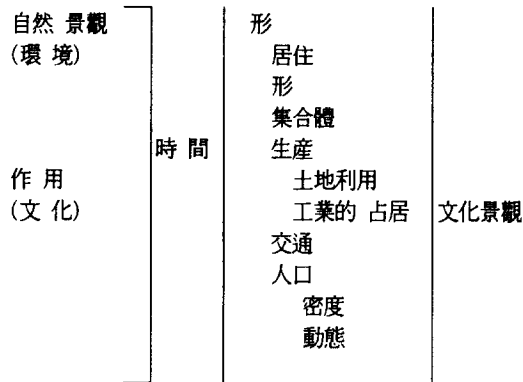


그림 1. 自景觀과 文化景觀의 關係 (渡邊光, 1933, p.38.)

헤트너와 마찬가지로 슈뤼터는 地域이란 그 주변지역으로부터 구별되는 지표상의 일부분이라고 개념화하였고, 경관단위의 핵심으로서 경관 요소들이 공간상에서 연합되어 총체적으로 표출된 형상(bild)에 역점을 두었고, 가시적 경관을 대상으로 생각하였다(이희연, 1992:212).

그는 지리학의 대상의 본질은 무시간으로 시간 극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전단면의 정태론을 생각하였다(綿貫勇彦, 1935:229). 즉, 그는 원리를 배제하고, 발전에서 이탈된 자유공평한 관찰을 가능한 얻었다. 그는 지상에 주어진 대상으로 지리학을 제한하였는데, 여기서 주어진 대상이라는 것은 경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슈뤼터와 헤트너의 공통점은 첫째,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은 하나의 전체 지리학이며 둘째, 지지적 관점에서 서 있었다는 점이다. 차이점으로 슈뤼터는 환경론을 버리고, 시간 극복을 중심으로 대상

론적 방법에 의거 지방의 종합적 출현을 목표로 경관론, 혹은 형태론 논리를 강조하였고, 또한 넓은 영역에 자유로운 경계를 한정하고, 小地誌的이고, 소지역의 정밀한 고찰에 힘을 기울이었고, 따라서 취락에 흥미를 느꼈다. 반면에 헤트너는 환경론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근본원리는 엄밀한 地理的 因果論이고, 특히 좁은 영역에 엄밀한 경계를 한정하였고, 世界地誌的이고, 大地域의 넓은 고찰에 임하였다(綿貫勇彦, 1935:1-2).

슈뤼터 이후 지리학자들은 더 작은 단위지역을 연구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이는 경관의 개념 자체가 넓은 지역보다는 좁은 지역의 연구에 보다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관이란 개념은 구체적이고 관찰할 수 있는 특징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되었고, 때로는 등질지역과 同意語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슈뤼터는 당대의 지리학 사고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취락지리학 발달은 그의 공헌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경관의 유형 개념은 프랑스의 장 브뤼느(Jean Brunhes)에 의해 프랑스에 소개되었고, 그는 이 개념을 이용하여 지역 형성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슈뤼터의 문화경관 아이디어 위에 한층 지리학을 발전시킨 학자들은 後述할 노베르트 크렙스(Nobert Krebs), 오토 마울(Otto Maull), 빌헬름 크레드너(Wilhelm Credner), 알프레흐트 펄크(Albrecht Penck), 휘고 하싱어(Hugo Hassinger) 등이다. 이들은 1920-30년대 경관유형학과를 형성하여 지역연구를 꽃피우게 하였다. 헤르만 라우텐자흐도 슈뤼터의 문화경관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지지연구를 하였다.

4. 獨逸의 景觀類型學者들

헤트너가 철학적인 면에서 地誌의 對象 規定과 地域區分을 발달시켰다면 지역구분의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공헌한 사람들은 주로 펄크(Penck) 門下의 제자들로 구성된 경관유형학과에 속한다. 특히 1920년대와 1930년대는 景觀學이 전성기를 구가하였고, 많은 지지 연구 업적이 쏟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 당시 대표적인 학자로는 파사게(Passarge), 마울(Maull), 그라노(Granö), 크렙

스(Krebs), 라우텐자흐(Lautensach)를 들 수 있다. 라우텐자흐가 마지막 경관학자로서 『코리아』(Korea)라는 책을 경관론적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독일 지역 연구에서 경관유형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대부분 뎡크 제자들이었다. 뎡크는 水河地形의 研究者로서 또는 ‘地形學’(Geomorphology)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한편 그는 水河地形뿐만 아니라, 地誌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자연지리학자인 그는 지리학의 중심이 地誌라고 종종 강조하였는데, 이는 아마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그 지방 각각의 특수한 지리적 현상이 발달하는 것을 보고, 지지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山崎直方, 1912:24-5). 또한 그는 1925년부터 地誌叢書(Bibliothek länderkundlicher Handbücher)를 監修 發刊하였는데 극히 우수한 저작만을 엄선하여 발간하였기 때문에 내용의 충실도가 매우 높았다(辻村太郎, 1936:67). 창간 이래 1939년까지 출판된 地誌는 겨우 7명 著者と 11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뎡크의 景觀은 협의의 경관(ein Stück Erdoberfläche mit gleichen Zügen)이다. 그러나 그는 자연적인 것을 자연경관, 인문적인 것을 문화경관이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다만 ‘空間적으로 맺어져 있는 종종的事物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즉, 그는 크렙스처럼 경관구분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1920-30년대 경관 연구 동향을 보면 셋으로 대별될 수 있다(戶田秀雄, 1932:45) : 1) 自然景觀 研究 ; Passarge(1913)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2) Marthe(1877)를 시조로 Sölch(1924), Penck(1928)에 계승된 空間域(Chorosgebieten)을 대상으로 하는 地域論(Chorologie) 研究 3) 文化景觀 研究 ; Friedrichsen(1921), Gradmann(1924), Krebs(1924), Hettner(1927), Schlüter(1928), Creutzburg(1930). 이들 중에서 경관유형학파에 포함되는 사람은 파사게, 쉴호, 그라트만, 크렙스, 크로이츠부르크 등이다. 경관학자들에 의하면 경관(Landschaft)은 그 구성요소의 단순한 총화 이상의 존재이고,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성격이라고 운운되고, 또한 경관과 그 구성요소와의 관계는 유기체와 그 부분과의 관계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고, 하나의 형상(Gestalt)이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경관을 하나의 공간유기체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전체는 부분과 관련 없이는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물론 부분은 또 전체와 떨어져서는 이해할 수 없다. 경관은 유기체는 아니지만 이를테면 地理的 形狀(geographische Gestalt)이다. 景觀은 내적인 전체적 조직을 통하여 주위 경관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여기서 경관 구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파사게 이후 경관구분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20년대와 30년대 경관지역구분의 붐은 주로 독일의 경관유형학, 혹은 문화경관의 연구자들에 의해 일어났다. 그러면 경관유형학을 창시한 파사게(Passarge), 뎡크(Penck) 그리고 그 문하생인 크렙스(Krebs), 마울(Maull), 쉴호(Sölch), 그라너(Granó) 등 주요 인물의 사상과 지역구분 방법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파사게는 경관학파의 創始者라고 할 만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슈튀터에서는 결여된 경관 요소의 결합에 대한 착상을 갖고 있었고, 또한 그 사고에서는 경관유형의 구상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함부르크 대학 교수인 그는 방법의 독창성, 폭 넓은 그의 저서, 그의 학생들에 대한 지역연구에 대한 자극, 지리학 잡지에 기고한 비평으로 유명하다. 그의 저서 중 주목을 끄는 것은 『景觀學의 基礎』(Grundlagen der Landschaftskunde, 1919-20), 『比較景觀學』(Vergleichende Landschaftskunde, Berlin, 1921-30), 『景觀類型的 論理上 問題』(Das Problem der logischen System der Landschaftstypen, 1939) 등 저서이다. 그의 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사용한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Unstead, 1931:164). 일반 독일어에서 Landschaft는 원래 영어의 landscape를 의미하나 추가로 ‘환경’ 및 ‘지역’과 동일한 의미도 갖고 있다. 후자의 의미는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공물과 인간 자신을 포함하는 일정지역이다. 그러므로 파사게의 저서는 지리적 연구지역으로서 ‘경관의 연구와 관련있다. 또한 형용사의 ‘比較’(vergleichende)는 지역 유형 도출과 동일 유형의 지역간 비교를 의미한다. 『景觀學의 基礎』 1권은 경관의 단위 요소를 고려하고, 2권은 경관 현상 즉, 해양, 대기, 식

물, 동물 등의 원인을 다루고, 3권은 지형의 근원, 4권은 경관에서 인간의 역할을 다루었다.

몇 년 후에 나온 『比較景觀學』 著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는 단위지역과 단위지역 계층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즉, 그는 개개의 기후·물·육지·식물 현상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고, 다양한 특징을 가진 이들 요소 중 우월적인 것에 의해 구성된 범위로서 景觀類型을 景觀領域(Landschaftsraum)으로 간주하였다. 가장 최소지역을 경관 부분(Landschaftsteile)으로 하고 그 예로 牧場, 斜面, 草原, 谷底를 들었고, 이것들의 서로 이웃하고 있는 부분의 집합이 부분경관(Teillandschaft)이고, 연속된 부분경관은 경관(Landschaft)을 형성하고, 이들 경관의 집합체가 景觀域(Landschaftsgebiet, 가령 북부 독일평원)이고, 나아가 이것들의 集合體가 景觀帶(Landschaftsgürtel ; 가령 중부 유럽 삼림대)이다(Dickinson, 1969:140-1). 筆者의 견해로는 파사게는 헤트너와는 달리 가장 작은 소지역에서 출발하여 대지역으로 나가는 지역 구분의 시도와 지역의 계층을 구하려는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파사게의 사고 중심을 이루는 것은 소위 자연적 경관(natürliche Landschaft)으로 이 의미는 지표형태, 지질, 지형, 기후, 수계, 식물계 및 동물계 전체에서 본질적인 면에서는 일치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파사게가 말하는 경관은 지표에서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관의 형상이 중심개념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자연적 경관이라 불린다.

이상과 같이 파사게의 경관영역 유형화는 자연적 요소를 결합시킨 것에 머물렀지만, 大小의 景觀은 그것을 통해 처음으로 유형적 질서부여를 가능케 한 동시에 복합체로서 지역개념으로 넓혀지고, 경관론에서 지역론으로 건너가는 교량 역할을 하였다.

파사게의 경관학(Landschaftskunde)은 공간적 경관학(räumliche Landschaftskunde)과 비교 경관학(vergleichende Landschaftskunde)으로 나뉜다(Passarge, 1929:86). 前者에서는 개개의 경관(Landschaft)이 문제가 되는 반면, 後者에서는 a) 절대적 크기, 넓이, 높이 b) 경관을 구성하는 한층 작은 경

관지역(Landschaftsraum)에 조직된 경관의 내적 구조 c) 식물, 광물, 지질관계의 우연적 형태(Zufallsform) d) 경관 위치관계 e) 기타 등이 문제가 된다. 많은 비본질적 현상을 脫却한 소위 경관 유형이 과제가 된다. 그리고 경관유형 체계는 두드러지게 기후적, 식물지리적 성격을 갖는다. 공간적 경관학에서 경관지역(Landschaftsraum)은 크기에 따라서 경관군, 대경관, 부분경관, 경관부분으로 나뉘어져 여기서 지역구분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 그는 지표를 종합적 견지에서 구분하였다. 그는 지역구분에서 물리적 특성만 고려하고 기후와 식생을 배제하였고, 실제 지역구분에서 린네의 방식에 따라 지역을 계(class), 문(sub-class), 강(orders), 속(genera), 종(species)로 구분하였다(Unstead, 1931: 165-6).

파사게의 경관 개념은 20년대와 30년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펑크는 '箇景(chore)'을 사용하되 의미를 바꾸어서 형태와 기능의 관점에서 통합된 최소 단위지역으로 하였다. 힐호(J. Sölch)는 최소 지리적 단위를 파사게의 景觀部分 대신 그리스 語源의 '箇景(chore)'을 사용하였고, 이 의미는 자연적으로 동질한 범위를 가진 영역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대표적인 地誌書인 『東部 알프스 地誌』에서 헤트너의 영향으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가장 전통적인 도식에 따라 개관에서 지질구조, 지형, 기후, 식물 등 자연적 성질과 언어, 인종, 취락, 광업, 공업 및 수력에 이어서 교통, 인구 등을 기술하였다(辻村太郎, 1931: 72). 여기서 경관학파의 독특한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그는 연구지역을 북부 석회암 알프스, 북부 縱谷, 중앙 알프스, 南部 縱谷 및 남부 석회암 알프스 등 6개로 지역구분하였는데, 주로 위치, 지질, 지형에 의거 구분된 자연지역 구분이었다.

문화경관에 대하여 처음으로 주의를 기울인 학자 중 한 사람이 크렙스(Krebs)이다. 그는 펑크 문화경관을 大有機體(Makroorganism)로 간주하였다(辻村太郎, 1939:661). 또한 그는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지리적 단위(Einheit)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그의 가장 큰 결점이었다(保柳睦美, 1929:56-7). 크렙스의 地誌

記述 項目을 보면 경관학파의 특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크렘스의 대표적인 地誌書는 『인도 및 실론 地誌』(Vorderindien und Ceylon, 1939)인데, 그의 스승인 뽀크의 감수하에 출판될 정도로 우수한 지지서이었다. 그는 이 지지를 쓰기 위하여 인도를 현지답사하였고, 놀라울 정도로 풍부한 문헌을 조사하였다. 저서를 완성하는데 15년이 소요되었다. 그 目次를 보면 1부는 책의 개관이고, 2부에서 지형, 기후, 토양, 식물경관, 농업을 기술하였고, 총론에 거의 이르러 인종·민족·언어·종교·문화를 기술하였다. 3부는 총론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辻村太郎, 1940:31-4). 유감스럽게도 이 책에서 인도의 지역구분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는다.

1925년 마을(Maull)은 ‘漸移地帶’라는 라첼의 思考를 境界條(Grenzsaum), 그것들이 결합한 境界帶(Grenzgiurtel) 概念으로 발전시키고, 그 내부에서 제요소가 중복된 ‘統一地域’(Einheitsgebiet)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水津一郎, 1974:108). 그의 『南유럽 地誌』(1929)에서는 自然景觀에 비해 文化景觀이 비정상적으로 넓은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경계 및 정치지리 외에 역사지리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辻村太郎, 1939:661). 그가 地誌記載의 方法論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지역의 구분이었고, 지역구분을 하기 위하여 채택한 방법이 境界帶 方法이었다(辻村太郎, 1938:168).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核心空間(Kernraum), 혹은 하나의 통일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대가 존재한다. 마을은 그라너나 스텐 드 기어와 약간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地誌構造圖를 작성하였다. 연구지역은 형가리이었고, 경계 결정에 사용된 요소는 평지와 구릉 및 산지와와 경계, 분수령, 등온선, 초지와 삼림 경계, 인구밀집지역과 희박지역 등 10개였다. 이 연구에서 核心地域과 境界帶를 추출하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마을의 지역구분에서 核心과 周邊의 對比는 동료인 라우텐자흐의 形態變移論에 적지 않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기온과 식생 한계선을 이용한 지역구분 방법은 라우텐자흐의 지역구분에서도 실제 이용되었다.

마을의 著書 『景觀地理學』(Geographie der Kulturlandschaft, 1932)의 내용은 경관지리학 地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辻村太郎, 1933:78-80).

즉, 경제지리, 취락지리, 교통지리가 설명된 후 종합적 경관지리가 전개되는 순이다. 경제, 취락, 교통은 景觀地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다. 마지막 부분인 종합적 경관지리는 당시 독일 학풍을 잘 나타내며 여기서 문화경관을 통일체로서 분석적 인문지리학에서 얻어진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과 대조하고, 종합적인 개관을 하려고 시도하였다. 마지막에 문화경관형식을 구별하였다. 필자는 마을의 지지서는 형식면에서 유형을 통한 지역구분을 시도하는 경관유형학과 내용 기술면에서 문화경관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계 결정법과 지역구분법 분야에서 가장 공헌한 사람이 스텐 드 기어(Sten de Geer)와 그라너(Granö)이다. 드 기어는 개개의 분포 요소 경계로서 분포 요소가 경계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절대경계의 사용이 가장 좋지만, 중요한 요소의 분포에 관해서는 그보다도 외부에서 요소 밀도가 보다 작고, 내부에는 보다 큰 경계대 즉, 상대적 경계대의 채용을 허용하는 경계결정법을 주장하였다(戶田秀雄, 1932:55).

그라너는 記號 圖式이라는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구분 문제에 기초를 닦았다(辻村太郎, 1932a:5). 이 방법은 경관유형학의 경관 지역구분에 매우 중요하므로 여기서 상술하기로 한다. 앞으로 기술할 내용은 그의 論文 「핀란드의 地理區」(Die geographische Gebiete Finlands, Eine vergleichende Übersicht nebst methodischen Erörterungen, Fenia 52, No. 3, Helsinki 1931)를 요약한 것을 다시 발췌한 것이다(辻村太郎, 1932b:91-6).

그라너는 1927년에 발표된 論文 「純粹地理學」(Reine Geographie, 1929)에서 경관에 의한 지역구분 방법, 경관 관계, 圖示에 관해 극히 친절한 설명을 가했지만 그 구분방법을 응용한 것은 에스토니아 한 지역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앞에 소개된 <핀란드 地圖帖>에는 식물경관도 및 인구분포도, 지형도 및 인구밀도도와 경관지역구분도가 원도와 동일한 축척의 칼라지도와 함께 들어가 있다. 筆者가 본 라우텐자흐의 『코리아』(Korea) 책에도 비슷한 지도가 삽입되어 있다.

그라너 경관연구는 경관요소의 조합에 의해서

경관성질을 결정하고, 그들의 특성에 의해 경관구분을 행하는 것이다. 그라너의 '地理的 地域'(Geographische Gebiete)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감각할 수 있는 지리적 환경(Geographische Umgebung)을 근경(Nähe)과 경관(Landschaft)으로 나누었다. 近境的 地域區分은 景觀的 地域區分보다 간단하다. 지역구분의 계급을 地理區(Geographische Örtlichkeiten), 地理領域(Geographische Bezirke), 地理的 地域(Geographische Gebiete)의 3개로 나눈다. 그리고 그는 이것들이 지역의 특성을 갖춘 지리적 개체(Geographische Individium)라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지리적 型式(Geographische Typus)의 존재를 고려하였다.

경관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형태집합(Formenkomplex)을 분석할 때 종류의 지리적 재료로 대표되는 것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집합 형태·형식으로 나누어 집합 형태·기호로 표시하고, 문자 및 숫자에 의해 표시하는 것은 편리하다. 가령 지표 경관은 라틴 문자로 표시하여 I. 高山地 II. 山地 III. 丘陵 IV. 小丘陵地 V. 低地 VI. 平地 VII. 臺地로 나누고, 水理景觀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여 1. 外海(湖) 2. 水脈 3. 湖水 4. 湖列 5. 해안의 水面 6. 물이 결핍한 지방으로 한다. 이어서 식물경관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하여 A. 삼림지 B. 관목지 C. 삼림습원 D. 습원 E. 초지 F. 암석원으로 나뉘고, 인공경관은 알파벳 소문자로 표시하여 a. 列狀村落 b. 塊狀村落 c. 點狀村落 d. 道路의 각 종류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형태형식을 나타내는 숫자 및 문자를 나열함으로써 하나의 지역에서 경관성질을 표시하는 景觀型式(Landschaftsformel)이 얻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景觀型式(Landschaftstyp)을 포함한 경관지역도를 만드는 일도 가능하다. 경관의 분석도를 겹쳐서 종합도를 작성하여 경관을 지역구분하는 방법이다. 그는 위의 방법으로 19개 地理區, 35개 地理領域, 105개 地理的 地域을 구분하였다.

라우텐자흐는 지리구를 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구분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한국을 지역구분하였다. 당시의 종합적 경관지역구분의 영향으로 田中啓爾가 「일본의 地理區」(1927) 논문에서 일본의 지역구

분을 할 때 지형, 기후, 식물대, 인문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는 일본을 10개 대단원으로 구분하고, 이어서 다수의 중단원, 소단원으로 지역구분하였다(金尾宗平, 1932). 辻村太郎, 戶田秀雄, 保柳睦美 등에 의해 경관유형학이 일본에 도입되고, 경관학과 저서들이 번역되고 일본에서도 그 방법에 따라 지역구분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리하여 과학적 지리학에서는 지역단위별로 나누어 지지를 기술하는 것이 필수품이 되었다. 문화경관의 형태학이 일본의 촌락연구를 촉진한 것도 전술한 바와 같다. 이 전통이 1945년까지 이어져 해방 후 한국 지리학에서도 많은 지역구분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한국지지가 기술된 바 있다. 그 예로 샤논 맥쿤(Shannon McCune)의 저서 『한국의 유산-지지와 사회지리』(Korea's Heritage : A Regional and Social Geography, 1956)와 『한국지리에 대한 견해』(Views of the Geography of Korea : 1935-1960, 1980)에서 한국 지역구분, 1947년 박노식 지리교과서에서 지역구분, 1971년 강석오의 『概觀 韓國地理』에서 지역구분은 독일의 경관유형학자들의 영향으로 수 있다.

5. 結論

20세기 전반기는 리터, 홀볼트로부터 시작된 근대 지리학이 꽃 피던 전성기였다. 19世紀末 답보 상태였던 地理學이 20世紀 들어서면서 地誌學를 중심으로 유럽 각국에서 눈부신 발달을 보였다. 특히 독일의 헤트너와 쉬워터, 프랑스의 블라쉬, 영국의 허버트슨 등을 지도자로 하여 각기 독특한 지역 연구 방법론이 발전하였고, 경험적 연구도 많이 쏟아졌다. 그리하여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지리학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본고는 1920년대와 1930년대 독일 地誌學者들의 지역 개념과 지지 방법론을 고찰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의 본래 목적은 당시 지리학자들의 地誌學 理論의 평가 내지 비판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의 지리학 경향이 근대 지리학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讀者들의 이해를 위한 소개에 중점을 둔 것이

다. 이 연구는 해방 이후 지역 구분 방법과 지역 기술 체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주목할만한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지역 연구는 地域論을 주장하는 헤트너와 경관론을 주장하는 쉬뤼터와 뎅크 문하생으로 구성된 경관형태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헤트너는 지리학을 지역학으로 정의하고, 지리학의 대상으로 대륙, 지방, 경관, 장소에서의 상이함과 지역성을 언급하였다. 헤트너는 가장 큰 지역인 대륙에서 출발하여 가장 작은 장소까지 大에서 小로 진행하는 하향식 지역 구분을 시도하였다. 또한 헤트너는 독일의 전통적인 지지 기술 방법인 「地誌的圖式」에 인과성 논리를 부여하고 발전시켰다. 헤트너와는 달리 쉬뤼터는 原景觀에서 文化景觀으로의 시간적 변화 과정을 연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파사게와 뎅크 문하생의 경관유형학자들은 자연 및 인문의 모든 제요소를 기준으로 경관의 종합지역구분을 시도하였다. 그 후 드 기어와 그라너는 기호도식이라는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구분 방법을 세련시켰다.

둘째, 독일의 지지학은 종합적인 특성보다는 분석적인 특성이 강하였다. 또한 독일의 지지학이 지형과 기후 등 자연지리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셋째, 프랑스 지지학은 소지역 연구에 중점을 둔 반면에, 독일 지지학은 국가 등 대지역의 연구에 초점이 주어졌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독일의 지역 연구 동향은 일본 지리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地誌學者인 田中啓爾는 지형, 기후, 식물대, 인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본의 지역구분을 시도하였다. 그는 당시 일본과 조선에서 지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註

- 1) 지리학 대상으로서 지표는 모든 자연계, 즉, 토지·물·공기·생물·인간 및 그 所産과 자연계에서 관계 등을 포괄한다.

- 2) 그리스어로 *dynamis*에서 유래하였고, 의미는 변화를 야기시키는 힘, 또는 능력이며 아리스토텔레스·스콜라 철학의 근본 개념이다.

文獻

- 李喜演, 1992, 地理學史, 法文社, 서울.
 金尾宗平, 1927, “地理學的單元論,” 地球, 10(5), 19-26.
 辻村太郎, 1930, “文化景觀の形態學,” 地理學評論, 6(7), 657-689.
 _____, 1932, “地理學的景觀,” 地理教育, 16(2), 1-6.
 _____(批評), 1932, “گران오어 芬蘭의地理區,” 地理學評論, 8(12), 91-96.
 _____(批評), 1935, “ウイル헬미나 フェンドル 二十世紀に於ける英國の地理學,” 地理學評論, 11(1), 66-69.
 _____(批評), 1938, “ヘルバ르트 루이스, ヴォルフگانク 판츠ァー編輯 ノルバ르트 크레프스 記念論文集 地誌的研究,” 地理學評論, 14(2), 74-77.
 _____(批評), 1940, “노르바르트 크레프스 : 前印度及세이론,” 地理學評論, 16(11), 31-4.
 _____a, 1952, “헬만·라우덴자츠하 : 朝鮮地誌,” 地理學評論, 25(4), 35-6.
 _____b, 1952, “헬만·라우덴자츠하 : 코리아,” 地理學評論, 25(11), 465-6.
 _____, 1953, 地理學本質論, 新地理學講座 2, 朝倉書店, 東京.
 飯塚浩二, 1935, “地理學史의諸問題(1),” 地理學評論, 11(10), 1-43.
 _____, 1936, “地理學史의諸問題(2),” 地理學評論, 12(5), 24-43.
 _____, 1955, 人文地理學說史, 日本評論新社.
 渡邊 光, 1933, “景觀發達と景觀分析(上),” 地理教育, 17(4), 25-32.
 _____a, 1933, “景觀發達と景觀分析(中),” 地理教育, 17(5), 31-34.
 _____b, 1933, “景觀發達と景觀分析(下),” 地理教育, 17(6), 35-40.

- 綿貫勇彦, 1929, “ヘットナーの地理學方法論及び地表區分,” *地理學評論*, 5(10), 1-22.
- _____, 1930a, “地理學に於ける文化の意味,” *地理學評論*, 6(4), 46-68.
- _____, 1930b, “人文地理學の特性,” *地理學評論*, 6(7), 208-225.
- _____, 1935, *地理學方法論*, 地人書館, 東京.
- 松井 勇, 1932, “ハンス・シュベトマン 獨逸の地理學に於ける地誌學の體系,” *地理學評論*, 8(1), 60-62.
- _____, 1937, “ビエルガー Landschaftの概念,” *地理學評論*, 12(4), 71-83.
- _____, 1938, “合衆國に於ける地誌學の理論並びに技術の大戦後に於ける展開の傾向,” *地理學評論*, 14(11), 64-74(Pfeifer, G., 1938, “Entwicklungs-tendenzen in Theorie und Methode der regionalen Geographie in den Vereinigten Staaten nach dem Kriege”, *Zeitschr. d. Gesell. f. Erdk. z. Berlin*, H. 3/4, S. 93-125).
- 戸田秀雄, 1932, “景觀區分に關する一考察,” *地理學評論*, 8(3), 44-71.
- 佐藤 弘, 1936a, “エヴァルト・バンゼの地理學理論(上),” *地理學*, 4(2), 13-20.
- _____, 1936b, “エヴァルト・バンゼの地理學理論(下),” *地理學*, 4(3), 72-76.
- 田中啓爾, 1927, “日本の地理區,” *地理學評論*, 3(1), 1-21.
- _____, 1933, *地理學論文集*, 古今書院, 東京.
- 松尾俊郎, 1929, *人文地理學*, 古今書院, 東京.
- 國松久彌, 1928, “地理學と文化科學との交渉(二),” *地理教育*, 14(1), 40-45.
- _____, 1930, *人文地理學と文化景觀*, 古今書院, 東京.
- 小牧實繁(抄譯), 1933, “人文地域,” *地球*, 20(2), 33-45(H. G. Fleure, 1917, “Régions Humaines”, *Annales de Géographie*, 24, 161-174).
- _____, 1933a, “マルトンヌの地誌方法論,” *地理教育*, 18(5), 1-7.
- _____, 1933b, “綜合的地理的地域決定法(上),” *地球*, 21(1), 62-71.
- _____, 1933c, “綜合的地理的地域決定法(下),” *地球*, 21(2), 28-46.
- _____(抄譯), 1934a, “ヘットナー-地理學に於ける全體性の概念,” *地理教育*, 20(6), 53-57.
- _____(抄譯), 1934b, “フォーセット, 英蘭の自然的區分,” *地球*, 22(3), 61-70.
- _____(抄譯), 1935, “一獨逸人の見た佛蘭西の地理學と地圖學,” *地理教育*, 21(5), 7-10 (Christaller, W., 1934, “Zur französischen geographischen Wissenschaft und Kartographie, *Geographische Wochenschrift*,” Heft 39, 2 Jahrgang, S. 1000-1001).
- _____, 1936, “地誌と一般地理學, 地誌の方法,” *地理教育*, 23(5), 1-10.
- 富田芳郎, 1939a, “地理學本質の再検討(一),” *地理教育*, 31(1), 8-12.
- _____, 1939b, “地理學本質の再検討(二),” *地理教育*, 31(2), 39-47.
- 岩崎健吉, 1940, “地理學の統一と其の使命 - 一般地理學の末路,” *地理學*, 8(2), 105-109.
- 別枝篤彦, 1933a, “地誌敘述の方法に就いての一考察(下),” *地理教育*, 18(2), 20-25.
- _____, 1933b, “地誌敘述の方法に就いての一考察(下),” *地理教育*, 18(3), 32-36.
- _____, 1935, *人文地理學通論*, 地人書館, 東京.
- 磯崎 優(抄譯), 1933, “地表に關する地域科學としての地理學(承前),” *地理學*, 1(3), 122-124.
- 保柳睦美, 1929, “文化景觀の理論的研究,” *地理學評論*, 5(11), 55-66.
- Dickinson, R. E., 1969, *The Makers of Modern Geography*, Frederick A. Praeger.
- Dickinson, R. E. & Howarth, O. J. R., 1933, *The Making of Geography*, The Clarendon Press
- Hettner, A., 1892, *Die Kordillere von Bogotá, Petermanns Geogr. Mitt. Ergänz.*, Nr. 104.
- Hettner, A., 1924, *Grundzüge der Länderkunde: Ausereuropäische Erdteile*, Bd. II, Leipzig.
- Hettner, A., 1927, *Die Geographie-ihre Geschichte, ihr Wesen, und ihre Methoden*, Breslau : Ferdinand Hirt.
- Hettner, A., 1933-35, *Vergleichende Länderkunde*, Bd. 1-4, Leipzig und Berlin.
- Hettner, A., 1934, “Neue Angriffe gegen die

- heutige Geographie," *Geographische Zeitschrift*, 40 Jahrgang, 9 Heft, S. 341-343.
- Hettner, A., 1934, Der Begriff der Ganzheit in der Geographie, *Geographische Zeitschrift*, Jahrgang 40, Heft 4, S. 141-144.
- James, P. E. & Martin G. J., 1981, *All Possible World : A History of Geographical Ideas*, second edition, John Wiley & Sons.
- Leinbach, W., 1936, Landeskunde von Tuwa : Das Gebiet des Jenissei-oberlaufes, Petermanns *Geogr.Mitt.* Ergänz, Nr. 222.
- Passarge, S., 1929, "Das landschaftskundliche System," *Pet.Mitt.* 75, S. 86.
- Schick, M., 1982, "Otto Schlüter 1872-1959," in Freeman, T. W. and Pinchemel, P. ed., *Geographers : Biobibliographical Studies*, 6, 115-122.
- Unstead, J. F., 1931, "The Regional Geography of Siegfried Passarge,"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78, No. 2, 164-166.
- Von Drygalski, E., 1932, "Das Länderkundliche Schema," *Pet.Mitt.* 78, S. 6-8.

The Trend of Regional Geography in Germany in the 1920s and 1930s

Jae-Wan Kim*

Summary

The regional geography had been at the height of prosperity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since Alexander von Humboldt and Carl Ritter. The geography remained stationary in the late 19th century had greatly developed around the regional geography in European countries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Particularly, A. Hettner and O. Schlüter in Germany, Vidal de la Blache in France and A. J. Herbertson in Britain developed their own methods of regional studies and produced many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 accordingly the regional geography had been at the height of prosperity in the 1920s and 1930s.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regional concepts and the methods of regional studies of Germany geographers in the 1920s and 1930s. This study is useful to understand the current methods of classifications of regions and descriptive systems of regions.

The noteworthy results of stud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regional geography of Germany had been developed by Hettner who regarded the geography as the chorological science of the earth's surface, Schlüter who did the geography as the study of cultural landscape and Penck's students, the morphologists of landscape (Landschaftsmorphologie). Hettner defined the geography as the chorological science, maintained that the earth's surface was classify according to

its localized difference -continents, lands, districts and localities(Erteile, Länder, Landschaften und Ortlichkeiten) and emphasized on the total character of areas. He tried to classify downward from continents to localities based on the sizes of regions. He also gave the logic of causal relation to schematic approach(Das Länderkundliche Schema) and further developed it. Schlüter argued that The process of change on the landscape through time must be studied. And Passarge and Penck's pupils, morphologists of landscape, tried to classify the landscape synthetically. Thereafter, De Geer and Granö employed the creative methods of regional classification which used signs and simboles.

Second, The regional geography of Germany differed from that of France on the next points ; 1. The former was analytic, but the latter was synthetic. 2. The former placed great emphasis on physical elements, terrain and climate etc., but the latter did great emphasis on both physical and human elements. 3. The former gave priority to the studies of large scale regions, but the latter did priority to the studies of small scale regions.

In 1920s and 1930s the regional study of Germany geographers exerted direc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geography of Japan. Especially, Tanaka Keiji, Japanese typical regional geographer, tried to classify Japan

* Ph.D.,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ynthetically on the bases of terrain, climate, vegetation and human elements under the influence of European geographers. He exerted great influence on both Japanese and Korean geographers at that time.

Key words : regional geography, classifications of regions, descriptive systems of regions, Das Länderkundliche Schema